

李大統領-정몽준 회동 ‘주제는 소통’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정몽준 한나라당 신임 대표와 첫 당청 회동을 갖고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서화합과 국민통합 등을 위해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찾은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 당이 활기차 보여 좋다. 당 대표는 만능스포츠맨 아닌가. 당이 젊어보인다”는 덕담으로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청 소통과 원활한 협력, 여야 간 소통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 대표 뿐만 아니라 당의 다른 지도부, 종전 및 일반 의원들도 더 많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청 간 소통 확대를 건의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당정청의 소통과 원활한 협력, 여야 간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당과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대표직을 수행할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날 조찬 회동에서 이 대

MB, 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 긍정 검토

MJ ‘당·정·청 협력 여야 가교 역할 할 것’

“동서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 대표의 제안에 “새만금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터널이나 교량을 많이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만금 연결 동서고속도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한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총연장 181km의 고속도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강 사업 예산 편중 논란과 관련, “4대강 예산이 16조원인데 22조원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맡아 하기로 돼 있는데 4대강 예산 때문에 내년도 다른 SOC(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4대강 사업은 유엔환경계획(UNEP) 성장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10월 재보선에 대해 “보궐선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너무

피울 필요가 없다”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지푸 선거 이야기를 하면 서민들이 짜증이 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과 각종 민생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입각한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 정 대표가 “당 출신 장관이 잘해야 다음 국회의원도 기회가 올 텐데, 잘못하면 기회가 없으므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정책에 밝은 분들이고 신뢰를 받고 있어 잘할 것으로 믿는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키노 아들 “내년 대선 출마” 고(故) 코리노 아키노 전(前) 필리핀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 이 아키노 필리핀 상원의원이 9일 마닐라의 산 후안 지구에서 기자회견 중 오는 2010년 5월 10일의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한 뒤 어머니의 ‘리본’(투쟁) 사인을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李大統領-박근혜 前 대표, 내주 만날 듯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주 중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모셔서 만나려고 준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음주

중 만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박 전 대표가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녀온 12월 13박의 유럽 순방에 대한 보고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난 1월 회동 이후 8개월 만의 만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낙하산’ 2만 5천명 생존 비상

민주당 “관료 병폐 바로잡겠다” 칼바람 예고

8·30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이 ‘관료 왕국’의 병폐인 낙하산 수습에 나선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정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퇴직 관료나 공무원의 ‘철밥통’이 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공익법인, 지정법인 등은 모두 4천504개. 지난 2007년 현재 이들 법인에 교부된 국가예산은 12조1천334억엔에 달하며, 이 가운데 9조엔 정도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추정되고 있다.

차기총리인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기회를 때마다 4천

500개 단체에서 2만5천명의 낙하산이 투입돼 나라 예산을 쪼먹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낙하산 기관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용과 낙하산 근절의 총대는 신실 필 국가전략국이 맨다. 부총리인 국가전략국 담당상에 ‘관료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간나오토 대표대행이 내정됐다. 민주당이 황당한 낙하산과 방

만한 예산배정의 전형으로 낙인찍은 기관은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협회는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간 월 10만~12만엔을 올해 7월부터 향후 3년간 30만명에게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8월말 현재 수급자는 980명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라면 3년간 수급자는 3만명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단체에는 직원 130명에 연간 운영예산은 40억엔에 달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낙하산의 ‘불날’은 갔다. 이달 중순 민주당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낙하산을 향한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김치축제 ‘학술 행사 위주로’

신종플루 영향...김치 연구·산업화로 컨셉 바꿔

“2009광주김치문화축제”가 전시·이벤트를 취소하고 학술 행사 위주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6차 광주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10월 23일부터 개최하기로 한 김치축제를 취소하되,

김치연구와 산업화분야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치문화축제추진위는 당초 42개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나 이 가운데 전시·이벤트 등 36개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신종플루 확산과 직접 연관

이 없는 온라인 마케팅, 학술 심포지엄, 숨어있는 김치이야기 발굴, 김치산업콘텐츠 공모사업 등 비행사성 6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객2-김치전쟁’ 영화제작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축제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 예산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 선금금 잔액 반납 조치 등 정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김치문화축제 예산은 총 24억9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이벤트업체 선금금 9억원, 운영비 1억3천9천만원 등 10억3천900만원이 지출됐다.

광주시 내년 국비 2조원 확보 총력

차시장 오늘 지역 국회의원·예결위원 만나 협조 당부

광주시가 내년 국비 목표액 2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는 등 총력을 모으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2010년 국비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광태(사진)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엔 한나라당 이정현 예결위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예결위 간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한다.

박 시장은 또 11일 오전에 한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



록 지원해줄 것을 부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2010년 도 국고예산 2조3천115억원을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이는 올 예산 확보액 1조6천492억에 비해 40.1% 증가한 수치이며, 부문 별로는 신규사업이 38건 3천367억원, 계속사업은 94건 2조404억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 우루무치 여전히 불안

주사기 테러, 6~8일에만 77건 신고돼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지난 6일 오후부터 8일 오후까지 77건의 주사기 테러 신고가 들어왔으며 10명의 용의자가 추고로 체포됐다고 중국 경찰 당국이 밝혔다.

이로써 주사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45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5일 경찰이 집계한 주사기 테러 건수는 총 531건이었다.

중국 경찰 당국은 주사기 테러범 중 일부는 독극물을 유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영자신문인 중국일보를 통해 밝혔다.

우루무치에서는 지난주 중국 정부

당국에게 주사기 테러를 막아달라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그 이후 수천명의 무장경찰이 우루무치에 추가로 파견됐다.

우루무치에 거주하는 한족 시민들은 주사기 테러와 관련해 위구르족을 비난하며 바이러스와 독극물과 같이 위험물질이 담긴 주사기를 이용한 공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루무치시 검사가 5일 마약중독자들이 헤로인이 담긴 주사기로 경찰을 공격한 사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중국 관리들은 그런 위험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BALG 하이브리드 회백방수 리모델링' (IBALG Hybrid White Waterproof Renovation). It features a man in a suit, a car, and various service icons. Text includes '신속한 공사', '예산 절감', and '보증 기간'.

Advertisement for 'YHB' (Yonghe Bank) featuring a woman and a car. Text includes '연기/남새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Solving citizen grievances with YHB) and 'YHB' logo.